
제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1960년5월13일(단기4293년) 상오11시

의사일정

1. 제3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의장,부의장,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4.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검사실
시의견
-

부의된안건

1. 제3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3面
 3. 의장,부의장,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 15面
-

○임시의장 이원찬; 11시까지 나오지않으면 유회하겠다고
연락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11시2분이
되었습니다.

오전은 성원미달로 유회하고 오후 두시에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4시 15분 개의)

○임시의장 이원찬; 재석의원 24인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제35회임시회 제2차회의에 일정에따라 먼저 전일 의사록낭
독이 있습니다.

1. 제3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박두순;

(제35회임시회 제1차회의록낭독)

○임시의장 이원찬; 이상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이 회의록낭독에 있어서 본의원의 그 발언이 회의록에 좀 확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듯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것은 폐회중에 사임서를 표했다는것을 반듯이 본의회에서 수리되어야 한다는것을 원의로 어저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회의록을 정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한진점 의원; 인제 회의에 있어서 경찰관 留任에 관한 건이라고 했는데 이 경찰관 가운데에서는 그야말로 야당 색채나 혹은 진정한 민주경찰로서 후방에 남아있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공 사찰비에 긴급동의안입니다.

경찰가운데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유임되었다는것이 아닙니다.

60만환 내지 80만환을 이 혼란한 틈을타서 착복했다는것은 공산당보다 더 뻔뻔한 시경찰관이 나쁘다는것이지 절대로 다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오늘 회의록에 서명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성유 최인호 두의원입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보고사항에 들어가기전에 신임 부시장님의 여러분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종철; 5월10일자로 부시장에 발령을 받은 정종철이올시다.

금반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외로 본인이 귀시에 근무하게 되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된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난국에 처해서 시장을 보좌해서 성심껏 양심적으로 맡은바 의무를 재임동안중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제일먼저 간사장 보고가 있습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박두순;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취득에 관한건(짚차매수)
2. 재산취득에 관한건(전곡국민학교신설용지)
3. 재산취득에 관한건(송신국민학교확장용지)
4. 재산취득에 관한건(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
5. 재산취득에 관한건(계동 복래국민학교확장용지)
6. 재산취득에 관한건(세검정국민학교용지)
7. 재산취득에 관한건(송덕국민학교용지)
8. 재산취득에 관한건(노량진국민학교용지)
9. 재산취득에 관한건(동신국민학교확장용지)
10. 재산교환에 관한건(마포여자중고등학교용지)
11. 재산교환및매수에 관한건(삼양국민학교용지)

4월2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2. 재산매각에 관한건(안암국민학교교지내청소차고)

4월2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3. 재산취득에 관한건(경기도 소유인 시립삼성직업보도소 건물)

4월2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전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에는 발언요청 들어온것이 몇개있는데 제2로 김제윤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시직원이나 시의원 자체가 마 좀 정체가 바뀌었으니 좀 새마음과 새뜻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사항으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못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의원 자리에 안계시면 다음순서로는 김향복의원입니다.

발언해주세요.

○김향복 의원; 제가 보고의 말씀 드릴려고 하는것은 지난번 4.19사태이후에 그 갑자기 긴급구호대책에 관해서 몇분의 신청으로 4월21일에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긴급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시행된 몇가지건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21일에 그 4.19사태에 대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날 첫째로 그 집행부당국에 요청할것은 첫째는 원고하니 사망한이에 대해서 조위금을 일금30만환식 지출할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상자로의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시비로 부담할것을 시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건으로 시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시로서는 시비로 조위금을 우리 정책위원회들은 30만환을 요청했지만 20만환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1구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 쌀 한가마니씩을 조의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완치하기까지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있어서 오늘까지의 결과에 있어서 그 사망한이에 대한 총수가 1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9일까지 통계가 사망한이가 144명 그가운데에 지금 이제 말씀한 한분에 1구에 대한 조위금 20만환과 쌀 한가마니를 지금에 있어서 95명에게 지불되었습니다.

아직 지불되지못한것은 그 유가족이 완전히 발견되지 못했기때문에 지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환식 지불해서 344인분이 지불되었습니다.

기타 6십4만6천환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무엇인고하니 각병원에 입원한

그 부상환자에 대해서 위문을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17개소에 그 전원을 위문했는데 384명 위문을 했습니다.

이 위문은 전의원을 4반에다가 논아서 한반이 4개소씩 병원을 위문했는데 각각 부상자 한분에 대해서 3천환식을 384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70개소를 방문을 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결과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3천환식 전부 지불을 해서 위문금 총액은 115만천환 이것이 지금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치 경과되었고 내용이 우리가 이 학생을 주동한 이번 사건이 되기때문에 4.19혁명이후 4.26사건을 합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산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혹은 국민학교 학생의 사망자와 혹은 부상자수는 총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국민학교학생 전체의 사망은 27명입니다.

그 이외에 중상자가 51명 경상자가 41명해서 92명이 지금 학생으로서는 부상자가 낮습니다.

그만한것이 되어있고 그외에 그때당시에 결의사항 가운데에 계엄사령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기에 있어서 오후 7시부터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9시까지 연장할것을 계엄사령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그 며칠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또 그후에 교육위원회에 학생피해조사를 의뢰한것은 그후에 조사가 되어서 자세한 수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4월21일 22일 그때에 긴급대책위원회로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한 상황을 보고해드렸습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 순서는 아까 김제윤의원이 제출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김제윤 의원; 이사람이 생각한바 있어가지고 또 본의원이 소속되어있는 당에 결의내용에 입각해서 가급적이면 과도기 내무면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발언을 얹한다는 원칙밑에서 얘기를 삼가하려고 여러가지 제간에는 애를쓰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이 올시다.

지금 이 단상에 보고올리려 올라와가지고 얘기할라고 하는 그 요지에 있어서는 어제 박수형의원을 필두로 해서 몇 의원이 교육위원회 교육감선출문제에 있어서 어제 보고사항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보고한 내용이 그 내용을 혹은 일부 시중에서 시민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있는 또는 응하는 본인들의 보고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불미롭고 또 한개의 체계 밑에서 결정을 하되 너무나 방법들이 또는 순서에 있어서 결한 점이 있었지않느냐 어디까지나 이론정연한 가운데에서 사리정연하게 얘기했다는 내용을 이사람도 듣고 동조합니다만은 어제 이 말씀을 한것으로 해서 혹은 새로운 생각밑에서 생각하는분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는바 느낀바 가지고있는 상식범위내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정의택이 교육감선출에 있어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어제 보고한후에 교육위원회 네사람이 엄요섭위원을 위주로 해서 네사람이 정교육감에 대한 비난에 성명을 각일간신문에 다가 보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여기 나와서 정교육감이 부당하다는 얘

기는 얼핏 정교육감과 대결하든 엄요섭위원이 맞당 타당하다는걸로 알고있느냐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박수형의원이 보고한것이나 보고했기때문에 이 사람이 동조하는 내용이 나가 어떤모로 보든지 200만시민을 향유하고 나가서 수도서울에 자치교육을 선구적노력을 한다는 교육감이기때문에 내가 더좀 여러가지모로 명실상부되는 교육감으로 새로 선출하는데있어서 의의를 가진것이지 결코 지금 정의택교육감과 대결했든 엄요섭이 맞당 타당하다는 얘기로는 이사람은 았알고 있는것입니다.

더욱 제가 길게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그 네사람이 비난한 중요골자로서의 하나는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책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그사람들 네사람중에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았했다고 할만한 정도에 그 깨끗하고 훌륭한 위치에 있는 교육위원이든가 하는 문제가 검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고저 하는것은 그사람 네사람이 비난했다는것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이사람이 동조를 했다는 이 얘기에 걱정이 사실상 명실상부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에 의의가 있다고하는 얘기로써 이사람이 시중에서 들은바 느낀바 몇마디를 보고해놓고 내려갑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은 신사회의원 말씀하세요.

○신사회 의원; 이제 김제윤의원께서 보고사항 말씀하신것 대개 본의원도 하고저하는것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위원회들 몇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사람이 한마디 았할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5월10일날 합법적인 교육감 선거를 필한뒤에 불과 사흘이 경과된 오늘날 오늘 보도된 신문내용을 보면 반민주

교육감 「랫델」을 부처가면서 성명서를낸 교육위원회 엄요섭위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사람이 거기에 대두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출한것이 어디까지나 민주방식에 의거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다대수로서 정의택씨가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차점으로서 현 교육위원회로있는 엄요섭위원이 낙선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네사람이 네가지 항목을 열거해가지고 결국은 반대적인 성명을 한것을 볼때에 첫째는 문교부의 보통교육국장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네분이라는것이 엄요섭위원 「박희병」위원 「익호」위원 「김봉준」위원인데 이 「박희병」위원은 자유당의 중앙위원의 일원이고 또한 「김이호」 「김봉준」위원은 그 핵심당 중앙당의 지도위원의 위치에 처해있으면서 지나간 3.15부정선거에 있어서 최전방에 나가서 갖인 행패를 부리며 선거운동을 한사람 중의 한사람 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어디까지나 법에 보장된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그런 불법선거에 또한 부정선거에 임해가지고 전방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어디를 교육국장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모략하면서 이런 성명을 내느냐 그말이에요.

또 엄요섭위원으로 말할것같으면 어디까지나 신성한 교육위원의 위치에 처해가지고 그 사람은 현직인 부의장의 자리를 기와로 해가지고 몇사람의 교육위원을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러한 야비한 수작을 가지고 야비한 양심밑에서 결국 이 성명서를 낸것을 보면 자기만이 교

육감의 자격이 있다는것을 발표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타 위원들이 이런 성명서를 내도 인격적으로 의심할바가 지대한데 자기가 낙선된 사람으로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을 떠들수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 네사람에 대한것을 평소에 인격적으로 숭배했기때문에 우리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이런것을 한것을보면 우리들로서도 책임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사람들 네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의심치 않을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택씨가 수학 교과서를 판매했다 또한 강매를 했다 이런말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이사람에 있어서 비난하는 그 자체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지당한 얘기에요.

(장내소연)

(「그만뒤요」 하는이 있음)

(「정의택이가 좋으면 좋다고 해요」 하는이 있음)

교과서를 발간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비난한 교육위원들 우리 47명들 시의원들중에는 아마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자로서 의당 이 교과서를 발간해가지고 판매한것이 무슨 나쁜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말이에요.

이런점으로 볼때에 비난의 대상이 앓되는것으로 본의원 생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또한 어제 박수형의원도 여기서 정의택에 대한것을 비난한것이 개인 인신공격을 한것이기때문에 이런말을 하는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피차간에 양심에 호소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저께 그 박수형의원의 그 보고를 듣고 또한 저도

여기에 대한것을 의심을 했든것입니다.

그래 석간신문에 보도되자 공사립 교장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그 전화얘기 들어보면 그 교장들이 평하기를 그 출마했던 새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르지만 세사람 입후보자중에는 가장 정의택씨가 적당한 인물이라는 이런 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람 생각으로서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기때문에 또한 그러한것을 들었기때문에 이시간에 정의택에 대한 변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말도 들었기때문에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몇말씀 드린것입니다.

하고저하는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들을 그만두라고 하기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소연)

○장의순 의원; 4.19사태 이후에 우리 일반사회가 부패되고 썩고 또 썩어서 이러한 민주혁명이 일어났는데 교육계에서도 요새 대학을 위시해서 각종고등학교 일체 민주학원을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 해서 동맹휴학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태인것입니다.

제구역에도 한학교가 아니라 남녀중고등학교가 하나 대학이 하나 맹휴를 단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맹휴를 단행하고 있는 이면을 이유를 살펴볼때에 첫째 무자격 교원이 많다 요번에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는 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감이 승인을 하는 정도로 했는데 교장의 사전 추천도없이 다갔다 넣었다 그말이에요.

아이들이와서 글을 배울려고 하는데 애들만큼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는것을 교육위원회의 당무자는 똑똑히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바삐 인사조치를 단행해서 어용교사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위원회 내부의 인사를 쇄신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특히 중등교육과 장학사진 대부분 이것을 학교별로 혹은 지방별로 해서 서로서로가 「크립」을 지어가지고 형성해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적지않다는 얘기를 하는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래서 우선 교육위원회 내부인사를 단시일내에 단행하고 그러한 무자격자 사실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실력이 없는사람 이것을 단시일내에 인사조치함으로서 맹휴가 수습이 되지않는가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민주혁명이된 이후에 학원에 도라가라 했든것입니다.

학원에 도라가보니 구태의연하고 그 전에있든 사람이 가장 충성을 다하는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 난다는것을 교육위원회는 똑똑히 알려주시고 하루바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문학우 의원;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선출에 대한 찬조연설장으로 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삼가해야 되겠어요. 어제께부터 오늘까지 발언한분이 다섯분인데 대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정의택 교육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하면

동의안으로도 나올수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이상 더 교육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말고 앞으로 기회를 보아서 동의안을 낸다든가 어떠한 의회의 태도를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를 맡으신 의장께서는 앞으로 교육감에 대한 발언을 일체 주지않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시간도 3시가 되었고 정부의장 선출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말씀 드리는데것입니다.

(「중소」 하는이 많음)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은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본의원이 그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이갑수의원의 사표 수리에 있어서 전의장인 박명준의장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처리했다는것을 먼저말씀드리고 이것은 전자에도 제가말씀 드렸고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이갑수의원의 사표가 4292년12월18일자 본회의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중에서 반듯이 사표를 가부를 본회의에 물어야 되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제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장 운영위원장도 반듯이 본회의에서 사표 수리해야 된다는것을 본회의가 결정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회의록에 확정을 했습니다.

반듯이 사표 수리는 본회의래야 된다는것을 법리적으로 해석을하나 이것은 정당한 이론이 옳시다.

왜그러냐하면 의장이라는것은 그 권한이 한도가 있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무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의장이나 부의장 또한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반듯이 이갑수의원의 사표수리에 있어서는 번안 해줄것을 내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별도로 그 사표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린다고 하면 다른 의원이 말씀해도 좋고 다만 법적으로 불법으로 처리되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회의에 제안했다는 사실은 본회의의 그 회기중에 처리가 안되면 폐기가 되는것입니다.

벌써 이미 사실을 별도로 4293년1월9일자 수리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의회를 운영하는 그분들이 법의 상식을 몰라서 무식의 소치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응당 새로 선출되는 의회운영자들이 번안을해서 취소조치를 해줄것을 요망하면서 별도로 새로 선출된 의장이 이것을 시정치않는한..... 시정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일 안된다고 하면 본회의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다음 박수형의원인데 토론적으로 말이에요.

교육감 문제가 되면 발언중지입니다.

○박수형 의원; 문제는 아까 김제윤의원이나 신사회의원의 말의 핵심이 정확해야 됩니다.

요는 엄요섭의원이 우리가 교육위원회로서 선출했지 들어가서 교육감운동까지 하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사람이 정의택씨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적격자다 아니다 하는 문제 하고는 관련이 다른것입니다.

이래서 만일에 여기에 나와 두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골

자가 정의택씨 같은분도 이 4.19 민주혁신후에 어떠한 선을 타거나 어떠한 동정을 받아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관계에 중요한 위치에 나오게 되면 과연 민주혁신킨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람이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이러한 기회를 타가지고 차점으로 낙선했던 엄요섭위원이 또한 시기를 타가지고 어떠한 성명서를 내는 문제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사람은 여러분의 중의로서 내말이 옳다든 그르다든 나는 거기에 하나의 신념으로서 정의택씨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부적당하다는것을 말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적격자라든가 뭐라고 할것같으면 나는 나대로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반박도 할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을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정도말씀드리고 제 태도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의자 선거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의장」 하는이 있음)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3. 의장,부의장,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문학우 의원; 의제 제3항인 의장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무입후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이 선출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지금 문학우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소」 하는이 있음)

○김인기 의원; 지방 문학우의원께서 의장 선거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2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 규칙 제5조에 의장 부의장은 의회에서 단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출석에 과반수의 득표만 가지면 되는것이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각각 하는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문학우 의원; 회의규칙대로 하기로 동의집에서 수정키로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계속) 그러면 제가 동의가 되겠습니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부칙에 의해서 추천으로 해서 당선이 되는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선거에 있어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문학우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방 김의원이 말씀한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신중수의원 신사회의원 두신씨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15시 10분 투표 개시)

(15시 20분 투표 완료)

○임시의장 이원찬; 이상으로 투표 끝났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입니다.

役票매수 재석의원수와 상달합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중 홍순우의원 15표 김재광의원 9표 한상기
의원 6표 김주홍의원 4표 김규원의원 3표 이원찬 1표 기권이
1표 이래서 39표인데 규정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 없어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2차투표 개시)

(15시 35분 투표완료)

재석의원 39인과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재광 8표 홍순우 22표 한상기 4표 노승환 1표 김주홍 2
표 이익렬 1표 신사희 1표 로서 홍순우의원이 22표로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 40분 투표개시)

(15시 45분 투표완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와 재석의원수 틀림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김석근의원 21표

이원옥의원 12표

한상기의원 2표

조영석의원 2표

정태희의원 1표

기권 1표

21표로 김석근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

(15시 50분 투표개시)

(16시 00분 투표완료)

개표를 하겠습니다. 재석수와 투표수 맞습니다.

개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9표중

이동률의원 9표

김인기의원 2표

이응린의원 1표

김제윤의원 8표

장의순의원 9표

김수길의원 6표

조영석의원 1표

김재순의원 1표

김재광의원 1표

기권 1표

그래서 과반수가 못되어서 2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6시 05분 제2차투표개시)

(16시 15분 제2차투표완료)

투표 안하신분 안계시면 개표합니다.

운영위원장 제2차투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장의순의원 13표
김제윤의원 9표
이동률의원 10표
김수길의원 2표
김인기의원 1표
조영석의원 1표
이응린의원 1표
기권 2표

그래서 과반수 미달입니다.

(「결선투표해요」 하는이 있음)

분과위원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전례대로 결선투표해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점자순으로 장의순의원 이동률의원의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투표개시)

(16시 30분 투표완료)

재석의원중에 투표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으면 개표하겠습니다.

(개표완료)

재석의원이 35인데 투표매수가 34인데 여기한사람이 가지고 나간 모양입니다.

(「투표매수대로 해요」 하는이 있음)

투표매수대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개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34표중 장의순 22표 이동률 9표 기권 한표 무효 두표 장의순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원찬이는 산파역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새로 당선되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앞으로의 일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부터 나와서 인사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우 의원; 주관하시는 의장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지의 원 여러분 오늘 여러의원들이 표를 모아주셔서 저를 외람되게 의장으로 당선되게 해준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저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할일이 태산같고 또한 4월혁명에 의해가지고 모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치단결해가지고 모든 난관을 타개하지않으면 안될 시기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정부된 이후에 거기에 개헌안 또 지방자치법 국가보안법 공무원법 경찰중립법 등등의 여러가지의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은 직접 우리 자치단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본 서울수도의회로서는 금후에 중차대한 임무를 견지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는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시일동안에…….

2 3개월동안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모든 그 과오를 막론하고 일심협력해서 나가지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래 의회를 운영하는자들은 민주적역량이 있어야하고 기술적 수완이 있어야합니다만은 본의원으로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소위 인격이나 그 역량에 있어가지고 태반부족하다는 모든 결점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은 짧은 임기중이지만 한가지 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모든 태도를 유지함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방식에 의지한 모든점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방식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고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회가 여기에 존중해 나간다는것을 말씀 드리는 동시에 본의원은 이 방침에 의해가지고 이 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뭐 그렇게 역량도 없고 또 그런 기술도 역량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여러시의원들은 그만한 인격과 또 지성과 3년동안에 쌓 그 경험으로도다 부족한 본의원의 모든것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본의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부의장 나와서 인사하세요.

○김석근 의원; 의원동지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기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천학비재한 저는 이 중책을 감당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수완과 역량많은 의장을 받들어서 짧은 기간이니만큼 제 힘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지도와 편달해주셨으면 이 의회 운영상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임시의장; 운영위원장 당선되신 장의순의원 나와서 인사하

세요.

○장의순 의원; 불초 이사람을 오늘 마지막 나는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릴길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실은 이사람이 원래 희망도 뜻도 가진바도 없었습니다.

요새 내 개인사정이 바빠서 사실상 의회에 며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오늘 제 자식이 결혼식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는데 중대한 회의가 있으니 나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뛰어나와서 말하자면 벼락감투를 쓴 모양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나머지 임기 몇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과거 제가 운영위원회에 간사직으로서 일해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더 나가서 그 실무를 토대로해서 마지막에 한번 뿐때가 있게 해야하는 마음으로서 표를 모아주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받들어서 또 의장단과 긴밀한 연락을해서 마지막 의회운영을 명백히 해볼까 합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이원찬;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분이 새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당선된 의장이 사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순우;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있어가지고 계속을 하겠습니다.

제4항에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출납검사실시의건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회의를 이걸로 끝맺고 내일로 했으면 좋겠는지 또 그렇지않으면 내일부터 검사로 들어가 가지고 해야 좋다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또 검사실시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먼저 여기에서 의논해야 좋다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이 4항에 있어서는 명일 의결하는것이 좋다고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개선해가지고 이 순간에 그 세분에게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계획하에 새로운 방침과 새정신으로서 내일부터 3차회의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4항말미에는 아무 의제가 없습니다.

의제없는 그 회의를 내일 속개하기가 법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사로서는 의장께서는 오늘은 이걸로 산회하시고 내일 속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해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삼청」 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홍순우; 지금 저 김재순의원께서 오늘 시간도 거진 다되고 했으니 피곤도 할터이고 하니까 오늘 4항에 대한것은 내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세요.

이의없으면 오늘은 산회하기로 합니다.

(16시 45분 산회)
